

FIFA U-20 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 운행

주말경기시 전주역~시외고속터미널~월드컵경기장 운행버스 21대

전주시가 FIFA U-20월드컵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경기시 1994년 시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축제인 U-20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전주를 찾는 국내외 축구팬과 전주시민을 위해 대회 개막일인 오는 20일과 28일, 6월 4일 등 주말경기가 열리는 3일간 1994년 시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주에서 대회 최대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와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경기, 대한민국 대 기아의 개막전 등 총 9건의 굵직한 경기들이 열리는 만큼, 많은 축구팬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말경기가 열리는 날 전주의 주요 관문인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특별노선(1994년)을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1994년 특별노선을 지난해 전북현대 주말 홈경기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총 2개의 경로로 운행할 방침이다. 1코스는 축구관객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평화동→한옥마을→시의·고속터미널→월드컵경기장코스, 16대의 차량이 8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2코스는 KTX를 타고 전주를 찾는 타 지역 관람객을 위해 열차도착 시간에 맞춰 5대의 버스가 탄력적으로 전주역→서신동→월드컵경기장 코스로 운행된다.

경기 종료 후에는 호남제일문 시외간이터미널에서 일제히 차량이 대기

해 관람객들의 귀가를 책임지게 된다. 이 외에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대회기간 전주시내버스 5개 노선(101, 309, 71, 73, 416) 33대가 하루 총 333회 정장 운행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 이용보다 편리한 경기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총 5,026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월드컵경기장 내 주차장 3,000면 △혁신로·기린대로·반월로 노상주차장 1,156면 △경기장 인근 임시주차장(전주공고, 반월초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870면 등이다.

이밖에, 시는 경기일정에 맞춰 경찰 및 교통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총 181명의 근무인력을 편성해 차량통제 및 주차장 유도안내, 불법·이중주차 단

속·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주IC에서부터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진입차량 신호 주기 변경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는 전주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 축구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만큼, 전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주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교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 지난해 전북현대 주말 홈경기시 열렸던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경기시작 2시간 전과 경기종료 후 귀가수송을 위한 1994년 특별노선을 총 222회를 운행, 총 1만3,109명(경기전 2,982명, 경기후 1만1,27명)을 수송했다.



순창에 떨어진 우박 11일 오전 6시 20분께 순창지역에 직경 5mm~2cm 우박이 내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일부 부모들 반발 “7월 이후 출생아에게만 지급시 형평성 어긋난다”

시, 의견 반영해 조례개정 맞춰 장려금 지원 예산 핑계로 조례 공포된 4월 4일 기준 상향된 장려금 지급해 공포일 이전 부모 원성 사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정책을 장려하겠다는 익산시가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소모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대에 나가기 위해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당초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의 경우 축하금 30만원과 축하용품 20만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둘째아이의 경우 3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8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쌍생아의 경우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신부와 부모들은 7월 이후 출생아에게만 장려금이 지원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에는 찬성하지만 7월 이후 출생아에게만 장려금이 지원될 경우 1~6월 사이 출생한 영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항의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차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가 예산을 핑계로 조례가 공포된 지난 4월4일을 기준해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공포일 이전 출생아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3일까지 출생한 531명의 신생아들은 기존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았다.

한 부모는 시청 게시판에 “4월4일 출생아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불평등 차별을 받게 됐다”며 “차라리 내년부터 일괄 적용하든지 올해 출생아부터 똑같이 적용해 달라. 그도 안 되면 전출이라도 가야겠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출생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공포일인 4월 4일로 앞당겼다”며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급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첫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급식에 2천4백여명의 조리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조리종사원의 어깨, 허리, 손목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첫 조사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학교급식 작업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학교급별(초, 중, 고, 특수), 급식규모와 급식횟수(1~3식)에 따라 표본 30개 학교를 선정할 후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조리, 취사, 식재료 운반 등 각 작업 내용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문화전당, 전주 야간명소로 각광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설치한 ‘천년 한지트리 & 한지빛 숲’이 전주시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위원장 이남호, 전북대총장)는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와 U20 월드컵 코리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마당에 2017개의 한지등불과 높이 10미터에 이르는 탑에 한지트리를 지난달 25일 설치한 바 있다.

‘천년한지 트리 & 한지빛 숲’은 한지축제를 통해 한지의 빛이 온누리에 펼쳐지기를 염원하는 마음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담고 있으며, 오는 21일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폐막될 때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점등할 계획이다.

이 한지조형물은 매일 오후 8시부터 2017개의 한지등불이 켜지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또한 전주영화제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역시 입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는 등 전주시의 야간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지빛숲을 찾은 김성숙(40, 전주시 진북동)씨는 “주변 친구들과 인터넷에 소개된 글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찾게 됐다”면서 “은은하게 비치는 한지등불을 직접 보니 너무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사진 동호회에서 야간사진을 찍기 위해 회원들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고 있다.



등불 2017개 설치 시민 발길 붙잡아

군산해경, 레저보트 안전제도활동 강화

최근 레저보트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안전제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4명)가 연료고갈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급파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앞선 8일에는 군산시 연도항 인근에서 레저보트 B호(승선원 3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과 민간해양구조선에 구조됐고 5일은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엔진오일 부족으로 표류한 레저보트 C호(승선원 3명)가 해경 경비정에 구조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레저보트 선장들은 출항 전 연료와 각종 장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양사고 예방은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이션과 레저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